

농협전남본부 예금잔액 10조 돌파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가 지난 69년 상호금융 업무를 시작한지 37년만에 예금잔액 10조원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000년 7월 농축협 통합당시 6조5천억원이던 예금잔액은 2002년말 8조원, 2004년 11월 9조원을 넘어선지 2년여만에 10조원을 달성했다. 중앙회에급 7조원을 합하면 17조원으로 지역내 일등 금융기관으로서 위치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됐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앞으로 풍부한 자금여력을 바탕으로 농업인에 대한 땀비ষ 대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연계, 소상공인을 위한 소호사랑대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광주상의 '광주·전남 고용포럼' 개최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함께 21일 지원센터 2층에서 '지역 노사정협의회 활성화와 광주지역 여성경제활동 증대'를 주제로 제 3차 광주·전남 고용포럼을 개최한다.

지역기업체 고용·인사담당, 학계 및 경제유관기관 관련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이번 포럼에서는 이상수 호남대 교수가 '지역 노사정협의회 우수사례연구(부천·부산·목포)', 장하경 광주대 교수는 '광주지역 여성경제활동 육구 및 고용증대방안'을 발표한다.

또 박성수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의 사회로 운영된 광주·전남 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노영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사무처장, 유영식 (재)연세직업전문학교 이사장의 지역토론회가 마련된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작지만 강한 은행' 으로 거듭난다

光銀 오늘 창립 38돌 기념식

광주은행이 20일 창립 38주년을 맞아 작지만 강한 은행인 강소(強小)은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

광주은행은 이날 오전 8시30분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세일즈 스타상 등 우수직원 표창과 함께 자유이엔씨 김창준 회장 등 우수고객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한다.

1968년 자본금 1억5천만원에 직원 50명으로 출범한 광주은행은 현재 123개 점포와 1천5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외형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10월말 현재 총 자산 14조5천억원에 총 수신 10조2천200억원, 총 대출 8조3천400억원을 기록했고 세전이익이 1천345억원에 달할 정도로 초우량 지역은행으로 성장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구 화니백화점 본점 전경. (주)서울레저가 종합문화쇼핑몰 분양에 실패하자 다시 매물로 내놓았다

광주에 백화점시대를 연 옛 화니백화점의 잔재인 본점과 주월점의 용도가 부도난지 10년을 맞아 지역 유통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영난으로 지난 97년 공정을 80%상태에서 부도가 나 그동안 흉물로 방치돼 온 광주시 남구 주월동 화니백화점 주월점의 경우 최근 외국계 기업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새 주인을 맞아 정상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도 10년 '구 화니백화점' 어떻게 되나

프랑스계 M&A 기업 주월점 인수 물밑작업

총장로 본점, 청소년 쇼핑몰 추진하다 실패...최근 매각 공고

19일 광주 남구청과 주월점 채권자들에 따르면 프랑스계 인수·합병 전문기업이 지난해부터 주월점 인수를 위해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협약을 진행 중으로 최근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

국제적인 규모의 M&A 전문기업으로 알려진 이 회사는 1순위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미국계 회사와 지난해 주월점 토지 매입을 위한 협약을 끝낸데 이어 현재는 SK건설 등 건물 채권단과 건물 매입을 위한 채무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월점은 모기업인 화니백화점이 경영난으로 부도가 나자 본점과 함께 광주지법에 화의인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03년 9월 결국 파산선고된후 지금까지 건물 공사를 맡은 일부 채권자들이 기본관리만 맡고 있다. 한때는 (주)디벤즈가 '메가트로'라는 이름으로 동대문시 중

지가 의류 쇼핑몰 분양을 시도했으나 분양이 안돼 정상화에 실패했다.

유지권을 설정한 채권단 대표로 건물관리를 맡고있는 김모씨는 "채무조정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빠르면 내년 봄에는 이 업체가 매입해 유통업체로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에 매각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광주시 동구 총장로 화니백화점 본점은 지난 2004년 10월 나주출신의 기업인이 소유한 (주)서울레저가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뒤 지난해 종합문화쇼핑몰 '하이하나'로 재 개칭하기 위해 분양에 들어갔으나 분양에 참패한뒤 서울로 철수했다.

서울레저는 하이하나내에 전국 최대규모의 스타크래프트 게임장을 설치하는 등 젊은이들을 타 것으로 한 문화쇼핑몰로 승부를 걸었으나 미미한



주월점은 프랑스계 인수·합병 전문기업의 물밑 인수작업이 진행중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분양률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으며 최근에는 100억원에 부동산 매각공고를 내고 인수자를 찾고 있다.

서울레저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건물 운영비 마련을 위해 지하 주차장만 운영하고 있다"면서 "분양률이 30%만 돼도 직영체제로 오픈할 생각이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 결국 매물로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국 항공수송 189개국중 8위

대한항공 화물분야 1위

한국이 국제간항공기구(ICAO) 189개 회원국 중 항공수송실적 면에서 작년 8위에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가입 250여개 항공사 중 대한항공이 10위에 올랐고 아시아나항공은 32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대한항공은 국제선 화물수송분야에서 2004년에 이어 작년에도 1위를 차지했다.

19일 한국항공진흥협회가 ICAO와 IATA 등을 인용해 발행한 '2006 항공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항공수송실적은

톤킬로(탑재무게×운항거리) 기준으로 ICAO 189개 회원국 중 8위(136억8천 700만톤킬로)를 기록했다.

여객과 화물 수송량이 늘었던 미국(1천520억톤킬로)이 2위 중국(257억6천 500만톤킬로)과 큰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고 중국에 뒤이어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싱가포르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여객수송 면에서는 693억여객킬로(승객수×운항거리)로 13위를 차지했고 화물수송은 74억톤킬로로 작년보다 7.9% 감소한 가운데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임동욱기자 tuim@

부산~상하이 노선 취항

아시아나, 주5회 운항

아시아나항공은 부산-중국 상하이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상하이 노선은 매주 월·수·금·토·일요일 주 5회 운항하며 부산공항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고 돌아오는 비행

편은 상하이에서 오전 10시35분(현지 시각) 출발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신규 노선 취항으로 기존 중국 노선의 운항 스케줄이 일부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20일부터 부산-항저우 노선은 매주 목·일요일에서 수·토요일로 운항 일이 바뀌고 부산-심양 노선은 화·토요일에서 월·금요일로 변경된다.

/연남뉴스

대학생들 4개월 기업연수받으면 8학점+ 월 30만원

대학생들이 4개월 동안 기업이나 산업현장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정규 학점을 인정받는 선진국형 산학협력 형태인 '대학생 산학협동교육프로그램 제7기 사업'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산학협력민관협의체기구는 19일 이를 골자로 한 '2007년 1학기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민관협의체기구의 '대학생 산학협동

대한상의 '산학협동'사업 오늘부터 신청 접수받아

교육'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 대학생은 협약체결기업에서 4개월간 실무사원처럼 연수를 받고, 한학기 최소 8학점 이상을 이수하게 된다. 참가학생들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연수수당 월 30만원과 대학과 기업간 자율협약을 통해 지원되는 보

조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2007년 1학기 사업은 20일부터 12월15일까지 대학-기업의 신청접수를 받아 내년 1월초 연수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연수기간은 내년 3월1일에서 6월30일까지 4개월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기업은 12월15일까지 민관협의체 사무국(02-6050-3629, www.sinsanhak.korcham.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종태기자 jtleee@

광주국세청 '찾아가는 세정서비스' 성과

현장파견 청문관제 시행

납세민원 등 900건 해결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권춘기)의 현장 파견청문관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62개

팀 160명으로 팀을 구성, 지난해 9월부터 영세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및 소규모 단체 등 세정서비스가 취약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분야를 찾아 불편을 해소해주는 현장파견청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결과 신청을 받아 파견한 경우 세법 교육 350건, 신고·납세안내 151건, 예로·

건의사항 해결 67건, 일용근로자 직업조사제출 등 900여건의 성과를 거뒀다.

또 정채파견 청문관의 경우 79건의 의견을 수렴해 10건을 업무개선으로 반영하고, 17건을 장기 검토과제로 선정했다.

현장파견청문관은 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복구작업을 돕기 위해 재해 관련 세정지원 내용을 세목별·일정별로 '맞춤형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기도 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이태리가구 전문점
The 100% Made in Italy

홍스제이스

광주광역시 분구 광명회차리(구도분림) ☎062-2286-7567

이태리 전문점, 이탈리아, 100% Made in Italy, 홍스제이스, www.100459.com

2006년 대한민국 산업발전 수상기업, 2006년 '청정에너지기업' 선정된 기업

에어컨+난방기+공기정화를 1대로

에너지 절약, 공기정화, 난방, 냉방, 공기정화, 100% Made in Korea, 렌탈, 100% Made in Korea, 080-701-7117

국립 및 일반대학, 02-855-4222